

더불어민주당, '총청 인재' 신용한·이재관·김제선 등 영입

신용한, 실물경제 전문가...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 이재관, 지방행정 전문가... "지방자치 완성 책임자" 김제선, 지역 활동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 기여"

더불어민주당은 7일 4·10 총선을 앞두고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를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신 전 교수, 이 전 위원장, 김 이사를 각각 15·16·17호 영입인재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영입 인재들은 모두 충청 지역 출신이다. 신 전 교수는 충북 청주, 이 전 위원장은 충남 천안, 김 이사는 대전 출생이다.

이재명 대표는 "충북, 충남, 대전의 대표 선수를 한 분씩 모셨다. 오늘은 충청 인재의 날"이라며 "충청은 대한민국의 지리적 중심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충청이 결정하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며 얘기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충청이 갖는 비중,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신 전 교수는 "우리 세 분의 총청 인재들께서 충청의 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 선도하는 새로운 미래를 내놓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신 전 교수는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실물경제 전문가다. 극동유통화그룹 회장실 최연소 사장에 임명돼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등 기업경영 일선에 나섰으며, ㈜맥스창업투자 대표이사를 역임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중소기업들의 활로 모색을 위한 지원에도 앞장섰다.

또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을 맡아 청년 일자리창출과 취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마련에도 힘써왔다.

신 전 교수는 "국가 '경영'이 아닌 여전히 국가 '통치'의 산업시대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경제, 일자리 정책은 아닌지, 시대적 과제를 관통하는 경제 원칙과 철학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책 공약 실무를 담당했던 정책 전문가로서 한없는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신 전 교수는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충북도지사에 도전한 이력이 있으며, 주로 여권에서 활동해왔다.

신 전 교수는 '철새 정치인'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철새는 추운데서 따뜻한 데로 날아가는데 (저는) 거꾸로 왔다. 지금 야당이다"라며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고 가까이 가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위원장은 행정고시에 합격해 30여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그는 천안군(현 천안시) 문화공보실장을 시작으로 홍성군 부군수,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대전시·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거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시절에는 청사 육상을 국민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개방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반응을 얻었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을 맡아 지방행정 현장의 오랜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이뤄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30년이 다되어 간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의제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자치는 없고, 통제와 관리만 우선하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천안 출마를 희망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으로 출마했던 경험이 있다"며 "천안에 애정이 있기에 천안을 대표해서 출마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지역을 이끄는 풀뿌리 활동가다. 그는 지역재단인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을 창립하고 대전지역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 청년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했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결과 '풀뿌리사람들'은 2000여개의 공익활동 조직을 키워내는 성과를 냈다.

그는 민간독립연구소인 희망제작소 소장을 역임하며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사회적약극화, 지역소멸 위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 만들기에도 앞장섰다. 아울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전국평생교육진흥협의회회장을 역임하며 보편적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김 이사는 "지역을 죽이는 정치 끝내고 주민이 행복한 정치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을 죽이면서 지역소멸 대책을 말하는 현 정부의

가증스러운 행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오히려 지방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총선이 아닌 대선 중구청장 재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나는 총선이 아니라 자치정부의 혁신 성과에 대한 관심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재위는 설 이후에는 비례대표 후보로 나설 인재 영입 발표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인재위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인재 영입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설 이후에 비례로 나갈 분들 포함해서 인재 영입을 몇 차례 더 해야 할 결론 판단된다"며 "총선이 임박해 집중해서 인재 영입을 추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저희가 비례를 염두에 두고 영입하신 분은 12호 백승아 전 교사"라며 "교사노조의 공식 추천이 있었다. 교사와 교육의 이해를 대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후보 검증과 관련 "기본적인 최소한의 검증은 인재위가 영입 이전에 검증을 한다"며 "자세한 검증은 별도로 공식 단위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희면기자



영광군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지난 2월 6일 제 27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영광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보고의 건 2건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각 부서의 2024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정

취하고, 군민 복리 증진과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강필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 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각종 안전 심의 등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이제 며칠 후면 갑진년 첫 명절인 설이 다가오는데 영광군민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한동훈 "자기세력 확대하는 공천하면 선거 망하는 것"

"아는 사람 없어...과거 실패 사례 없이 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4·10 총선 공천 전략과 관련해 "내부정치나 자기 세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 구도를 짜려는 사(私)가 들어갔을 때 선거는 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천의 원칙에 관한 질의에 "클리셰로 얘기하자면 깨끗한 공천,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클리셰에는 동의하고 목표인 건 맞지만, 더 구체적이고 낱 것의 말을 하자면 공천 과정에서 과거의 문제들을 봤다"고 했다. 이어 "과거의 문제는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정당이, 자기가 신세 지거나 아는 사람 은혜 갚는 식으로 끼워 넣는 거나 최대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그 이후에 내부정치나 자기 세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

구도를 짜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사가 들어갔을 때 선거는 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계파에 얽매이지 않는 공천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한 위원장은 "제가 우리나라 정당 대표 중 가장 유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 공천을 하기에는 가장 적합하고 준비돼있는 대표"라며 "저는 아는 사람이 없다. 계파의 문제는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다. 그걸 하기 위해 정치에 데뷔하는 날 정계 은퇴 선언 비슷하게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과거의 사를 들여다보면 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공천의 잡음에 훨씬 더 실망을 느끼고 그걸 표로 보여준다"며 "과거의 사례들이 있다. 저는 그 사례 없이 할 것이다. 그게 우리가 이기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권력의 실세가 공천에서 탈락할 수도 있

다는 의미인가'라고 묻자 "권력의 실세, 의회 권력의 핵심 중에서 이길 수 있고, 선거에 도움이 되는 분이라면 그분들이 불출마하겠다고 하면 집에 가서 말릴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기준은 명확하다.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지역에 나가서 이기는 것"이라며 "몇 선 이상은 그만둬야 하고, 어떤 권력과 친하면 그만둬야 하고 이런 식의 논리는 이기는 논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위성정당에 관한 질의에는 "국민의힘은 지난번 선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공언했다"며 "이런 왜곡되고 배배 꼬인 절차 안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병행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플랜 B를 만들겠다"며 "이 과정을 국민들이 보고 민주당을 평가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